Yeosu
Web Contents

2024년 04월 29일 10시 28분

목차

목차 2
여수시에 바란다(구) 3
평화테마촌 3

평화테마촌

2018.09.05 조회수 729 등록자 류OO

버스를 타고 돌산 향일암에 가다 보면, '대율' 이란 지명이 연거푸 두번 나옵니다. 마을 들어가는 쪽에서 '대율' 이라 하고, 나가는 쪽에서도 '대율' 이라 합니다. 어리둥절합니다.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나가는 쪽은 '평화 테마촌' 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에게 "평화테마촌' 을 홍보하고, 혼동도 피하게 됩니다.

목록

댓글(0)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실명인증

이전글
여서동 불법 플래카드 부착을 강력하게 단속바람…

다음글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COPYRIGHT © YEOSU. ALL RIGHTS RESERVED.

Yeosu
Web Contents

여수시